

월요논단



정 구 철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코로나 19라는 전 지구적 환란은 새로운 사회 규범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의무적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5인 이상 회합 금지, 다중 이용 스포츠 시설 영업 금지, 각종 경기 운영 통제와 같은 조치들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현대인의 활동 욕구가 억제된 시대를 살고 있다. 제한적이지만 비접촉, 간접적 스포츠 활동과 가족 간 아웃 도어 스포츠로서 캠핑과 낚시, 개별 트레킹과 같은 스포츠 활동 정도가 이뤄지고 있다.

스포츠의 속성에서 오락적 요소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얼마 전 종영된 '몽쳐야 찬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은 스포츠의 오락적 속성을 이용해 감춰 지 내는 현대인들의 감압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었다. 각기 다른 스포츠 종목들에서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스포츠 영웅들을 모아 대중들 앞으로 끌어내어 축구라는 종목을 통해 그들의 개인적 인성을 보여주며 서로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좌충우돌을 통한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며 스포츠를 소재로 한 전혀 다른 형태의 장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를 힘입어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농구를 테마로 한 '몽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예고되었다. 그 외에도 요트와 낚시, 캠핑과 같은 종목을 방영해 간접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개인 방송인 YouTube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도 소개되고 있고 몇몇 건강 관련 프로그램은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약간 다른 영역이지만 e-sports로 분류되는 스포츠 게임 프로그램 역시 안정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스포츠는 사회적 현상에 따라 즉시 반응하며 발전

방콕 시대의 아웃도어 스포츠 경쟁력을 위한 제안

스포츠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개인성이 커지고 있다. 아웃도어 스포츠 분야에 관한 제주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몽쳐야 찬다'와 같은 미디어 프로그램은 좋은 예이다.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아웃 도어 스포츠 들을 모티브로 연령 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을 시리즈로 방영한다면 코로나 시대 이후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주의 명품 체험 상품으로서 의미있을 것이다. 제주의 경우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통합 운영되면서 두 분야간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차이가 크다. 아웃도어 스포츠로 분류되어 자연 속에서 이뤄지는 스포츠 활동들은 거의 전 분야가 정책적 관리 없이 스스로 발전해왔다. 제주만의 매력에 갖춘 경쟁력있는 친환경 아웃도어 스포츠 분야를 정책적 홍보와 지원, 관리를 한다면 코로나 시기를 이후에도 지역 사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개인성이 커지고 있다. 아웃도어 스포츠 분야에 관한 제주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몽쳐야 찬다'와 같은 미디어 프로그램은 좋은 예이다.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아웃 도어 스포츠 들을 모티브로 연령 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을 시리즈로 방영한다면 코로나 시대 이후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주의 명품 체험 상품으로서 의미있을 것이다. 제주의 경우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통합 운영되면서 두 분야간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차이가 크다. 아웃도어 스포츠로 분류되어 자연 속에서 이뤄지는 스포츠 활동들은 거의 전 분야가 정책적 관리 없이 스스로 발전해왔다. 제주만의 매력에 갖춘 경쟁력있는 친환경 아웃도어 스포츠 분야를 정책적 홍보와 지원, 관리를 한다면 코로나 시기를 이후에도 지역 사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코로나 환란 기를 거치며 부각되고 있는 사회 현상은 건강과 관련된 개인별 활동이 가능한 모험

사설

여론조사 과열 지양, 갈등 종식 계기로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찬·반 여론전이 과열양상이다. 찬·반측 단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치열한 여론전이 나선데 이어 정치권마저 진행되고, 조사후엔 도민감등에 중지를 나타내며 여론을 조종하는 등 갈등을 종식 못시켜 '후폭풍'에 휩싸일까 벌써 우려된다. 제2공항 찬·반 여론전은 15-17일 여론조사를 앞두고 도민 여론 흐름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를 겨냥해 한층 뜨겁다. 반대측은 이미 신문 광고와 도심지 1인 시위에 이어 지난 4일부터는 '제2공항 반대 삼보일배'로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찬성측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국책사업의 빠른 추진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며 이어 4일 피켓 및 현수막 홍보로 '맛볼'을 놓고 있다. 도내 정치권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찬성 입장을 정해 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자 더불어민주

당 도당은 여론조사의 공정·객관성 확보에 역할해야 할 의원·정당의 찬성 발표에 또다른 갈등이 기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제2공항 여론조사가 친신당과 끝에 실시되는 만큼 공정하게 진행되고, 조사후엔 도민감등에 중지를 나타내며 여론을 조종하는 등 갈등을 종식 못시켜 '후폭풍'에 휩싸일까 벌써 우려된다. 제2공항 찬·반 여론전은 15-17일 여론조사를 앞두고 도민 여론 흐름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를 겨냥해 한층 뜨겁다. 반대측은 이미 신문 광고와 도심지 1인 시위에 이어 지난 4일부터는 '제2공항 반대 삼보일배'로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찬성측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국책사업의 빠른 추진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며 이어 4일 피켓 및 현수막 홍보로 '맛볼'을 놓고 있다. 도내 정치권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찬성 입장을 정해 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자 더불어민주

팬생이모자반, 땀질식으로 처리할 건가

걱정이 많이 아니다. 팬생이모자반이 제주바다로 엄청나게 밀려 들어와서다. 그 양이 끝이 없어 보인다. 울어들 보름만에 지난 해 한햇동안 유입된 물량을 넘어섰다. 문제는 앞으로 팬생이모자반이 제주 해안가를 얼마나 뒤덮을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팬생이모자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 유입된 팬생이모자반은 지난달 31일 기준 총 5913t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97%인 5740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귀포시는 173t이다. 지난 해 1년간 유입된 양(5186t)을 한 달도 안돼 훌쩍 뛰어넘었다. 1월부터 팬생이모자반이 대거 밀려들면서 처리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상 팬생이모자반은 3월부터 6월 사이에 제주 해안으로 유입된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달 14일 서부해안에서 처음 발생한 후 제주 전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

다. 예년보다 두 달이나 일찍 제주 해안을 습격한 것이다. 향후 팬생이모자반이 봄철에도 많은 양이 들어닥칠 경우 제때 수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팬생이모자반 유입량이 심각하다. 지난 주말 우연히 지나게 된 제주시 구좌지역 해안가는 온통 팬생이모자반이었다. 마치 해안가를 누린 불결처럼 수놓았다. 그래도 지금은 한겨울로 쌀쌀한 날씨여서 그런지 썩으면서 발생하는 악취는 풍기지 않았다. 비단 팬생이모자반만 문제가 아니다. 해안가에는 각종 쓰레기도 함께 뒤엉켜 있어 바다경관을 해치고 있다. 제주도는 서둘러 팬생이모자반 수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참에 팬생이모자반 활용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농가에서 비료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팬생이모자반을 마냥 땀질식으로 처리할 수 없잖은가.

뉴스-in

설 대목 씹씹이 예전같지 않네

음식 소량·차레 간소화 분위기
○·설 명절을 앞두고 7일 장이 선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는 오전 일찍부터 인파로 북적었지만 씹씹이는 예년보다 줄이는 분위기.

조금이라도 싸게 제수용품 구입하려는 이들이 시장을 찾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형편이 여의치 않은데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설 연휴까지 유지되며 간소하게 차레를 지내겠다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

한 주부는 "예년엔 20명 정도의 친척이 모였지만 이번엔 각자 차레를 지내기로 해 음식도 소량만 준비할 계획"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양식업계도 '조기집행' 기조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제주 양식산업에 투입되는 예산 대부분이 상반기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

제주시는 총 8개 사업·73억7000만원 규모의 '양식산업 사업 예산' 가운데 배합사로 직불금을 제외한

구출제, 어장관리선 건조, 질병관리 방역 등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집행할 계획.

이를 위해 제주시는 이달까지 보 조금 심의 및 대상자를 확정해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송은범기자

학위수여식 온라인으로

○·제주대학교가 코로나19로 이달 23일 예정된 제65회 전기 학위수여식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

이번 학위수여식은 절차를 간소화 해 사전에 영상으로 제작한 후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으로 졸업생들에게 학위나 상장을 수여하는 식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

지난해 전·후기 학위수여식을 모두 취소했던 제주대 측은 "올해도 코로나 확산 우려가 여전하지만 졸업생들을 축하하고자 비대면 온라인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 전선희기자

열린마당

물과 땅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김 유 연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팀장

추진한다. 우선 현장 수요가 있는 작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은 5작물(망고, 레몬, 브로콜리, 섬쑥부쟁이, 유채나물)을 선정하고 적정 비료 사용량을 설정하고자 한다.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수행할 예정이며, 포장시험과 농업인 비료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경지 토양의 양분함량에 따른 적정 비료 사용량을 설정하게 된다. 사용기준이 설정되면 이들 작물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가 가능해지며 적정 비료 사용으로 토양 양분의 균형 관리와 비료 사용량 저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면적 작물 비료 적정 사용 기준 마련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업발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농업인들에게 제주의 청정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토양 검정 분석에 따른 토양비치방서를 확인하고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

부 고
양승부(제16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회 감사) 아버지 제주양공 창근(향년 94세)께서 서거 2021년 2월 5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2월 8일(월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9일(화요일) 오전 7시 30분
▶빈 소: 하귀농협장례식장 201호 분향실
▶장 지: 애월읍 상가리 공동묘지
아 들 양 승 부 머느리 이 명 윤
승 조(숙) 이 희 순
영 진 강 미 정
손 자 양 성 훈
기 훈 동 규
병 훈 손 부 이 수 현
손 녀 양 수 연 손 서 김 동 훈
※ 연락처 : 양승부 010-3691-0376
양영진 010-9877-5567
※ 마을 전하는 계좌
국민은행 879601-01-187130
이명윤(양승부 처)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지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상품 다수보유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 중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벽화(건물, 담장) / 인테리어 벽화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